

01 교회소식

만민을 깨우는 방송 선교

공중파, 위성, 케이블, IPTV,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와 다중 언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 GCN방송.

02 생명의 말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수 마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김으로써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03 기획특집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성령

폭포수와 같은 은혜, 나를 위한 간구, 내 마음을 알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깊이 되새겨본다.

04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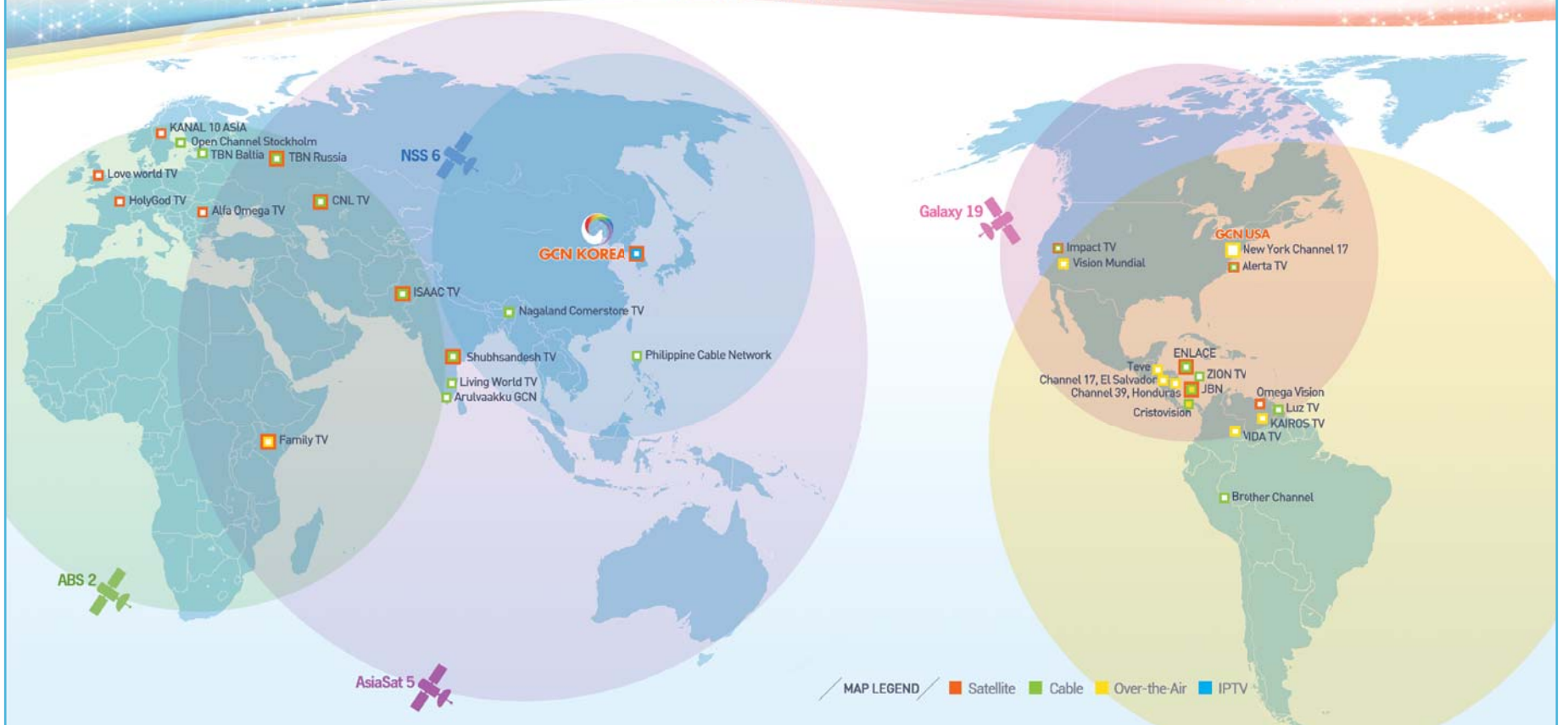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의 기도로 뇌경색을 치료받은 이승우 성도와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 행복을 찾은 필리핀 델마 동옥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790호 2017년 5월 28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GCN WORLDWIDE COVERAGE



방송 통해 전 세계를 덮어가는 성령의 역사!

170여 개국 커버하는 GCN방송, 시청자들의 간증 넘쳐

GCN방송을 시청하는 전 세계 170여 개국의 수많은 사람이 성령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통해 새로워지고 있다. 순수기독교방송인 GCN방송은 우리 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 예능위원회의 수준 높은 기독교문화 등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제작·송출하고 있다.

북미 지역은 미국 뉴욕 공중파 17번, 글로리스타 위성 방송과 로쿠, 아마존 파이어TV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은 NSS6, ABS2, AsiaSat5 위성을 사용하여 24시간 송출된다. 또한 40여 개의 방송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중파, 위성, 케이블 등으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권을 커버하는 TBN러시아와 CNL TV, 유럽의 홀리갯TV, 영국 러브월드TV와 파키스탄의 이삭TV, 중남미 최대 기독교방송사인 엔라쎬와 온두라스 JBN, 엘살바도르 CH17, 코스타리카 크리스토티전 등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 뉴저지 주의 크리스티나 페레스 성도는 “공중파 채널 17번으로 GCN방송을 늘 시청하는데, 특히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큰 깨우침과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라고 전했고, 글로리스타 위성을 통해 시청하는 미

국 시카고 사미라 트치코 성도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이재록 목사의 말씀 프로그램이라고 고백하는 등 많은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감사해했다.

엘살바도르 카를로스 고체스 성도는 “엔라쎬 방송을 통해 GCN방송을 시청하는데 다른 곳과 구별된 특별함에 충격을 받았고, 권능과 진실함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했으며, 멕시코의 카를로스 사르미엔도 성도는 “이재록 목사님의 영적인 삶이 제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딸의 골반 형성 이상으로 고민하던 비르히니아 디아스 성도는 엔라쎬를 통해 GCN방송을 시청하며 은혜받던 중, 콜롬비아만민교회로 인도받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받고 딸이 치료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TBN러시아를 통해 온 가족이 GCN방송 팬이 된 우크라이나 안톤 베구 성도는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게 된 뒤, 말씀대로 살자 노력하면서부터 사업터에 축복이 계속되고 있음을 전했다. 러시아어권 최대 크리스천 포털 사이트 인빅토리(www.invictory.org)에서도 메일을 통해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요청해 놀라운 치료와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인도 최초 기독교 TV방송국인 굿뉴스TV는 인도는 물론 주변국과 중동,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GCN방송의 ‘찬양과 경배’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그 중 힌디어채널인 슈비산데시TV는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케이블과 위성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지난 4월부터는 가정용 위성방송인 에어텔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고, 설교 후 진행되는 이 목사의 환자기도를 통한 치료 사례도 늘고 있다. 갈파나 사마야 성도는 우울증을, 타라 성도는 불면증을, 쇼바 샤카 성도는 귀 통증을 치료받는 등 간증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또한 인도 아룰바꾸 GCN을 통해서 매일 12시간씩 이재록 목사의 설교와 GCN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방송되고 있다. 아브라함 빈센트 사장은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고 악귀가 물러가고, 암, 폐병, 위장병 등 갖가지 질병이 치료될 뿐 아니라, 불임환자가 임태하는 등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최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에 나라와 언어, 민족과 교파를 초월해 전 세계 만민의 영혼을 성령의 복음과 권능으로 재창조하는 성령의 역사는 GCN방송(www.gcntv.org)을 통해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파될 것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세레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12)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예비하는 자로서 구세주의 사역을 이루 시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았지요. 따라서 ‘세레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곧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로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습시다. 율법을 낱날이 지켜 행해야 했고 지키지 못해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사함을 받을 수 있었지요. 반면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에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성령 시대, 은혜의 시대를 오해하여 입술로만 “믿습시다.” 하면 범죄해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약 시대에는 행위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에 악을 품은 자체로 죄가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했고(요일 3:15),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 했지요(마 5:28).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호색, 우상 숭배, 분쟁, 투기, 방탕함 등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는 행위적으로 범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녕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면 행위적인 죄는 물론 마음의 악까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에 구원받기가 더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죄

를 버리고자 노력해 나갈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해 행위적인 죄는 물론 마음에 있는 죄성까지 버리게 되니 주님의 마음을 닦아갈 수 있습니다(롬 10:10).

2.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의 영적 의미

우리가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도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처소를 사모하여 침노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천국은 보이지 않는 영의 하늘에 속해 있으며 영의 하늘은 이 육의 하늘과 차원이 다른 영역입니다. 영의 하늘도 다시 여러 하늘로 나뉘지요(왕상 8:27 ; 대하 2:6 ; 느 9:6).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영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말합니다. 즉 셋째 하늘이 있다면 첫째, 둘째 하늘도 있을 것이고, 그 이상의 하늘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 하늘 중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셋째 하늘은 바로 천국이 있는 하늘이고, 천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처소인 낙원입니다(고후 12:4).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실 때 한편 강도는 죽을 직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지요(눅 23:43). 한편 강도는 회개하고 간신히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일이 없었기에 상급이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영접했지만 주 안에서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천국의 처소가 낙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참으로 거룩하고 영화로운 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천국에서 가장 영화로운 처소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며, 마음의 성결을 온전히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 예루살렘 성과 낙원 사이에는 여러 단계의 천국이 분류되어 있으며, 장차 성도들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천국의 처소가 결정됩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미혹하는 원수 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며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만큼 더 좋은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해 빼앗는다는 의미입니다. 갓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믿음은 작은 겨자씨만큼 밖에 되지 않지만 그 씨를 마음 밭에 심고 열심히 가꾸면 울창해져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나무와 같이 큰 믿음으로 자랍니다. 큰 나무에 많은 새가 깃들여 쉼을 얻듯이, 믿음이 큰 사람은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다(마 13:31~32). 마음이 온유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고 넓은 처소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마 5:5).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며 행복한 것을 상상해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낮은 처소인 낙원이라 해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보다 훨씬 아름답지요. 하물며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과 기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 밝히 알수록 이 땅의 것이 헛된 줄을 깨닫고, 세상의 욕심과 헛된 정욕을 버리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변화시키며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할 천국 처소는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에 결정됩니다. 아직 믿음이 작다 해도 열심히 천국을 침노하면 결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해 신속히 큰 믿음을 이루며 세월을 아껴 부지런히 천국을 침노함으로 가장 좋은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천국은 빛이신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원수 마귀 사단도 근접할 수 없는 빛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천국을 침노해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수 마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김으로써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침노하는 천국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원수 마귀 사단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훼방하며 의심을 불어넣고 미혹하여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러한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려면 원수 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마음의 성결을 이루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므로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레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세레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아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아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아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아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아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영이신 하나님과 영의 세계에 대한 믿음, 지식과 깨달음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느낄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다(갈 4:6 ; 고전 12:3). 성령강림절을 맞아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대로 성령은 갖가지 은사를 주신다. 만일 방언의 은사를 받아 기도하면 영적인 충만함과 기쁨을 맛보며 영의 공간인 천국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영안이 열리면 영의 세계에 있는 천국과 천사 등 매우 아름다운 영적 존재들을 보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마음 가득 임한다.

이와 더불어 성령이 베푸시는 권능의 역사를 통해 영의 세계에서 만 가능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함으로 불가능이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영의 세계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모두 참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육의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천국에 소망을 두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에(고전 2:10)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를 알려 주시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깨우쳐 주신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지, 하나님의 선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그 사랑과 선을 사모하여 마음에 이루어가는 만큼 평안과 희락이 임하게 된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공의, 즉 영의 세계의 법을 깨우쳐 주신다.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재앙을 만나지 않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 주시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의 일에 힘쓰며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따라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심에 감사하며, 영적인 기갈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겠다.

**값없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다.

성령은 진리(요일 5:7)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좇으면 크게 기뻐하신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면 우리 마음에도 화열이 넘치게 진리를 좇게 된다. 반대로 비진리를 좇으면 마음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시니 우리 마음도 곤고해진다. 돌아켜 진리를 좇을 때 곤고함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임한다.

이처럼 성령은 비진리를 좇지 않고 오직 진리만 좇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때때로 연약하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용서해 주시고 돌아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신다. 설령 마음의 귀를 닫고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영혼이라 해도 다시금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두드리신다.

마지막 때 인생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은 이 세대와 각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죄에 물들었는지 너무나 잘 아신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신 용서를 구하시고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이다. 때로는 자신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탄식하시며 대신 기도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신다.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영혼도 결코 버리지 않고 어찌 하든 천국으로, 천국 중에서도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끌어 주기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따뜻한 사랑을 마음 깊이 깨우친다면 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말씀하신 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곤고함을 느끼게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돕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것 같은 연단 중에도 때로는 하늘의 무자개로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신다. 필요한 것을 선물로 받거나 급히 필요한 금액만큼 뜻하지 않은 수입이 생기는 등 일상 속에서 함께하심을 나타내신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자상하심에 눈물이 핑 돌기도 한다.

예배 시 증거되는 설교 말씀이 꼭 내게 하시는 말씀 같고, 찬양을 부를 때 가사 하나하나에 감동이 임한다. 기도를 하다 보면 마

치 내 입에 기도 내용을 넣어 주신 듯 꼭 필요한 내용의 기도가 술술 나올 때도 있고, 성령 충만한 분들이 기도를 도와줄 때는 내 심령을 그대로 읽어 기도해 주기도 한다.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고 힘을 내라고 할 수 있다고, 새 예루살렘 성에 꼭 들어오라고 격려하시는 듯하여 더욱 그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마음을 알아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손길이다. 성령은 나의 말과 행동은 물론, 내 깊은 마음과 사람들은 모르는 내 형편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면 매 순간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분, 나를 품에 안아 주실 분이 나와 늘 함께 계심을 기억하여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더욱 힘차게 달려가길 바란다.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을 알아
도와주십니다**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선 4-8
- 마음발을 개간하자 1
- 육체의 결여 6-9
- 십자가의 도 22-24
- 일곱교회 12-18
- 믿음의 분량 24-27
-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1
- 요한계시록 강해 110-115
-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1-3

GCN TV설교

- 영으로 들어가는 습관 5(이수진 목사)
- 선(이미영 목사)
- 영의 세계 64(이희선 목사)
- 읊기 강해 29(신동초 목사)
- 유월절 2(정구영 목사)
- 사랑 2(김수정 목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다시해보기 18)
- 권능 스페셜 18
- 창조와 과학 15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78
- 내 마음의 찬양 20
- 모두 드려요 45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13
- 러시아 연합대성회 3
- 믿음으로 걸은 길 18

June 6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7.5.28~6.3

“뇌 영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정말 희한하네요!”

저는 평소 아내의 부탁으로 예배만 드릴 뿐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신앙서적 『십자가의 도』부터 읽으라는 말을 들었지만 한 귀로 흘렸지요. 그런데 지난 4월 초, 이 책을 읽으면서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가 제게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받고 구원을 얻는지, 왜 질병은 죄로 인해 오고, 왜 교회에 가야 하는지 등 어떤 책에서도 구명되지 않던 질문들이 마음으로 깨달아진 것입니다. 밤을 지새우며 세 번을 정독하여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 세상을 잘못 살았구나.’ 반성이 되었고, 이제는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실하게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4월 8일 토요일 아침, 속이 메스껍고 두통이 있었습니다. 심하게 체했다 보다는 생각했는데 저녁에는 증상이 더 심해져 두통으로 잠을 잘 수 없었고 화장실에 갈 때에도 정신이 혼미해 벽을 짚고 가야 했지요.

4월 9일, 주일 아침에는 교회에 가면서도 휘청거렸고 자꾸만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자고 했으나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 교회로 향했지만 도착해서는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주변에서 뇌경색이 온 것 아니냐고 하여 급히 당회장님께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지요.

4월 10일 아침, 심한 구토가 있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뇌경색으로 소뇌가 많이 망가져서 후유증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뇌는 몸의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망가졌으니 제 몸에 마비 증상이 올 것이라는 말이었지요. 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검사 결과를 본 의사는 “뇌 영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환자분이 대화도 가능하고 정신이 멀쩡하니 정말 희한하네요.”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불편한 곳은 없는지,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리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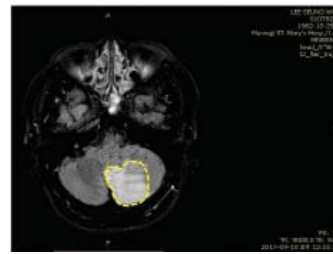
아내 정정에 집사와 딸, 외손녀, 사위와 함께 이승우 성도 (56세, 2대대 10교구)

는 않는지 여러 차례 물었지만 그때마다 괜찮다고 하니 이상히 여겼지요. 이들이 지나자 두통도 사라지고 몸이 회복되어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병실에 있는 동안 『십자가의 도』를 다시 읽으니 감동이 되어 속으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제게 주시는 말씀같이 한줄 한줄 밑줄을 그으며 마음에 새겼지요. 예전에는 왜 그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후회가 되었고, 권능의 기도로 영혼들을 살리시는 당회장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원한 지 4일 만에 건강해져 퇴원하고 싶다고 했지만, 의사는 “아직은 위험할 수 있으니 조금 더 관찰해 보자.”고 하여 일반병실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보행이나 먹고 말하는 것도 전혀 이상이 없었지요. 의사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거듭 말했고 결국 5월 2일에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 지금까지 평소처럼 출근해서 일을 하고 산책과 운동을 하는 등 컨디션도 좋고 건강합니다.

뇌경색으로 이미 소뇌가 망가져 평생 불구로 살아야 했을 제가 당회장님의 기도로 후유증 없이 깨끗이 치료되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뤄주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몸은 물론 마음까지 재창조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MRI: 좌측 소뇌 뇌경색 소견이 보임
▶ 치료받아 운동하고 있는 이승우 성도



“웃음을 되찾고 당뇨와 고혈압도 치료받았습니다”

델마 동욱 집사 (70세, 필리핀 세부만민교회)



저는 10년 넘게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으면서 자주 쓰러졌고, 다리가 많이 붓는 등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8월, 술과 컴퓨터 게임에 빠져 방탕하게 살던 손자(임마누엘 자프라, 사진 왼쪽)가 세부만민교회에 다니면서 변화되더니 저를 전도해 제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가면 왠지 모를 평안함이 임했고 근심,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지요.

GCN방송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았고 권능의 역사에 놀라기만 하였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며 기도생활도 시작하였지요. 2014년 2월 7일, 고혈압으로 다니엘철야 기도회 때 갑자기 몸이 떨리며 정신이 혼미해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담임 성숙 목사님이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해주시고 권능의 무안단물(출 15:25)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정신이 돌아와 신기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체험을 하였지요.

2016년 6월에는 다리에 상처가 생겼는데 염증과 진물이 나더니 다리가 통통 붓는 것이었습니다. 통증이 심해 잘 걷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지요. 습하고 더운 날씨라 벌레들이 밤새를 맡고 자꾸 달려들어 늘 붕대로 감싸고 있어야 했습니다. 당뇨로 인해 상처는 계속 아물지 않았고 붕대는 진물로 젖어 있었지요.

저는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판단하며 성도들과 부딪혀 서운해했던 일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당회장님께 기도를 요청해 10월 2일 주일,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지요. 그 뒤 놀랍게도 상처가 마르기 시작하더니 통증이 사라져 잘 걷고 잠도 잘 잘 수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당뇨병과 고혈압을 근본적으로 치료받아 아픈 곳 없이 아주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7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지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안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2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잠동1길 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역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시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